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비보험 리스크, 글로벌 보험사에 타격

- 2009년 상반기 글로벌 보험사의 실적이 저조한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보험부문보다는 비보험부문이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됨.
 - 비보험영업 부문에 해당하는 투자 및 헤징전략의 실패가 글로벌 보험사의 실적을 주로 감소시킴.
- ING는 주식투자 헤징에 대한 공정가치 적용으로 미국내 사업은 3억4천6백만 유로의 손실을, 자국내 사업은 4억1천7백만 유로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남.
 - 2009년 2분기 순수입이 96% 하락한 ING는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보유 부동산의 평가손실이 5억8천4백만 유로에 달하였고, 기타 신규 부동산 투자로 1억1천만 유로의 손실이 발생함.
 - ING의 은행영업부문도 2분기에 신용악화와 리스크 증대로 인해 8억5천2백만 유로의 대출 손실이 발생함.
- Aegon N.V.는 2009년 상반기에 7억7천9백만 유로의 손실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주로 서브프라임 및 기타 모기지 유동화 증권 투자 손실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.
 - 특히 네덜란드 사업부문에서는 지급보증 상품과 관련 헤징에 대해 공정가치를 적용함에 따라 5천4백만 유로의 손실이 발생함.
- Prudential plc는 상반기 중 내재적 가치 적용에 따라 투자손실로 7억7백만 파운드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남.
 - 핵심 대출금에 대한 시장가치 적용으로 말미암아 1억8백만 파운드의 손실이 발생하였고, 옵션과 지급보증 상품에 대한 현재가치 적용에서 3억8천4백만 파운드의 손실이 발생함.
- 보험사 신용평가사인 AM Best는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향후 글로벌 보험사는 보험영업이외의 부문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함.
 - 특히 보험 회계상의 불확실성은 이러한 움직임을 가속화시킴에 따라 글로벌 보험사는 해외자산을 매각할 것으로 보이며, 이는 향후 세계 보험시장의 재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평가함.

(AM Best, 8/20)